

민주당 광주 구청장 경선 레이스 시작

광주지역 6·13지방선거의 마지막 퍼즐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이 운명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광주지역 여·야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본선거 라인업이 대부분 완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컷오프 과정에서부터 집단 반발과 진영 갈등이 끊이지 않아 민심향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3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동안 5개 자치구청장 당내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일반시민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합산해 구청장 후보 5명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경선 결과는 5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남구를 제외한 4개구가 경선 지역이다. 컷오프 후 재심과 후보 단일화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선 후보는 15명으로 확정됐고, 동구와 서구는 4인 경선, 북구와 광산은 3인 경선이다. 남구는 단수추천됐다.

혹색선전과 비방에 법적다툼 직전까지 갈등이 깊어져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5개구 중 4곳 경선, 내일 오전 후보 확정

여·야 단체장과 지방의원 본선거 라인업

컷오프-경선 반발, 이합집산 후유증 우려

서구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현직 구청장이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컷오프되면서 탈당을 결행,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유력 주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막판까지 후보사퇴와 자력 탈탈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북구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터진 '여론조사 결함' 논란으로 단일화 논의가 엇나간 일이 됐고, 특정 후보와 여론조사기관 간 법적 다툼으로 감정의 골이 여전하다.

광산구에서는 컷오프된 4명 중 3명이나 재심을 신청해 1명이 구제된 가운데 유력 후보를 결재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가 발표 하루 만에 번복됐다. 다시 예비후보 4명이 한 캠프로 단일화하는 등 이합집산의 진

통을 겪었다. 경선 투표가 개시된 와중에도 막판 호소문 발표, 네거티브 정책 발표 등이 이어져 시민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결정되고 나면 여·야 각 정당의 6·13 대진표도 사실상 1차 완성되게 된다.

민주당은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 광역의회 지역구 출마자 20명, 5개 자치구 52개 선거구 출마자 52명을 확정했다.

민주당도 공천심사를 통해 광주지역 5개구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4곳에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고, 경선과 단수공천을 통해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10여 명으로 진영을 구축했다. 광주시장 후보는 2~3명의 외부인사와 막바지 접촉을 진행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5개구 중 유일하게 동구에 구청장 후보를 공천했다. '동구 토박이 김영우 전 광주시의원으로, 민주당과 평화당과의 3차 대결이 예상된다. 광산지역 국회의원 비서관과 동구의회의장, 현직 시의원 등 6명을 광역의원 후보로 내세웠고 기초의원 선거에도 8명을 출진시켰다.

정의당은 나경태 전 공동대표를 일찌감치 시장후보를 내세운 것을 비롯해 15명을 광역·기초의회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로 링 위에 올렸고 민주당도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를 포함해 모두 30명을 광역·기초의원 후보로 출마시켰다.

정의당은 40%, 민주당은 56%가 여성 후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박빙의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5개 구청장 후보가 확정되면 비로소 본선거가 막을 올리게 된다'며 '민주당이 색깔이랄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또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나 돌풍이 불지 결과는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뉴스1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겸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맡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공동대표, 손학규 선대위원장,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 수락

“합당 과정에서 호남 이탈”...안철수에 작심발언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3일 6·13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공식 수락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 및 안 후보 미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선대위원장으로 지원해야 할 안 후보에 대한 손소리도 가감 없이 내놨다.

손 전 고문은 “많은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을 수락) 반대했다”며 “특히 제가 함동안 살았던 호남 지방의 여론은 심각했다. 수도권 지역계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지휘할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는 회견에서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을 거론한 점 때문에 당내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손 전 고문은 “많은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을 수락) 반대했다”며 “특히 제가 함동안 살았던 호남 지방의 여론은 심각했다. 수도권 지역계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지휘할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는 회견에서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을 거론한 점 때문에 당내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북한의료건강 총괄지원센터” 순천에 설립

윤병철 순천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윤병철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 비핵화와 10.4선언 이행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상황을 알렸다.

이어 순천이 대북 화해와 협력, 평화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공약법인 '북한의료건강 총괄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사업을 공약했다. 대북사업 중 경제협력사업은 유엔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지만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은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6.13지방선거에 당선되면 시점으로 취임하는 즉시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북한 의료체계가 빈약하고 수도시설도 미흡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질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지난 1997년에 순천출신 린트카 문이 운영하는 유진재단에 의료 지원요청 해왔고 이 사업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일은 순천사람이 먼저 시작했다는 상징성을 극대화해서 흠어져 있는 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순천시가 총괄하면 정부와 국민의 성원을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 덧붙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남지사 후보들 ‘영암 교통사고’ 원인 규정놓고 ‘신경전’

김영록 “안전문제”vs “이성수 “근본원인 모르는 천박한 인식”



민주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 교통사고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재 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중 재해에 해당함으로써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후 발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노인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참사 원인 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전

남 교통사고 사망자 빈소가 미려진 나주시 영산포 제일병원 등지를 찾아 유족 등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해마다 영농철이면 70이 넘는 어린 신들께서 함께 일을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들을 태운 운송차량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과속과 승차인원 초과 등이 주된 원인이고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안전의식 미비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가 될 경우 이번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문제를 재차 점검하고 더욱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밝혔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혹시 보험가입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성수 후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3일 성명을 내고 “과속과 승차인원 초과 등이 주된 원인이고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안전의식 미비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을 헐리구 구부러지도록 농사일을 해오셨고 80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발일에 나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이 영암 버스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전남의 농민은 다 아는 사실이다”면서 “전남부지사과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번, 농수산식품부장관까지 지냈고 전남도지사를 해 보겠다는 후보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라 칭했던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인식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김 후보는 자신의 경력에서 증명하듯이 이 비극적인 전남 농업 농촌 농민을 만든 장본인이다.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남 농민에 대한 석교대죄이다”면서 “농민의 이름으로 존엄하게 규탄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농민에게 사죄하고 입장을 다시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